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일인 지난 14일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막공연 '잡색 X'가 펼쳐지고 있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18일까지 '소리 대장정'

장르 불문 전 세계 음악 한 곳에

소리문화전당 중심으로 전라감영 등 전북 일원서 진행

전통음악 · 클래식 · 대중음악 · 월드뮤직 등 공연 다채

세계의 다양한 소리를 마주할 수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올해부터 여름으로 시기를 앞당겨 닷새 간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23년차를 맞은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닷새동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전주 전라감영, 익산 나바위성당 등 전북자치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세계소리축제엔 14개국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총 80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총 106회의 공연이 예정됐다.

올해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이라는 키워드 아래 풍물굿·판소리 등의 전통음악은 물론 전세계 뮤지션들이 보여주는 각 나라만의 특색있는 공연과 전통음악에 낯선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 무대 등 시대와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기존 세계소리축제는 가을철 시기인 9월~10월께 열렸지만 올해는 그 시기를 바꿔 여름철에 축제가 진행된다. 개최시기 변화를 통해 세계소리축제는 여름의 분위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 더 많은 관객과 호흡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후 7시 30분, 세계소리축제의 시작을 알릴 개막공연 '잡색X'는 농악의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전북지역 농악 중 하나인 임실필봉농악을 재해석한 무대다.

'잡색X'를 연출한 적극 감독은 농악에 대한 정의를 민중에서 찾아 '잡색'이라는 농악 무대 뒤켠의 놀이꾼에 집중해 무대 위 창작자보단 관객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닷새 동안 각기 다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창들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이자 세계소리축제의 명실상부 대표 공연인 '판소리 다섯바탕'과 개성 넘치는 젊은 소리꾼들이 참여하는 '청춘예찬 젊은판소리'도 각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과 전라감영 일대에서 펼쳐진다.

여름으로 시기를 옮긴 만큼 이에 맞는 뜨거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관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다양한 국가의 전통음악과 국가 간 크로스오버를 통한 신선한 세계음악 공연은 물론 대니구, 윈디시티, 글렌체크, 이박사 등 대중음악 아티스트의 공연을 함께 묶어 즐길 수 있는 '소리썸머나잇', 국내 최초 성장형 국악 뮤지션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인 '소리프론티어'는 '소리의 탄생'과 손을 잡고 '소리프론티어×소리의 탄생 2'로 새롭게 찾아오며, 바로크 리코더와 국악, 전통 무용 등 다양한 음악예술을 느낄 수 있는 '전주의 아침'과 같은 공연도 준비돼있다.

축제의 문을 닫는 폐막공연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는 오는 18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홀에서 진행된다. 이 공연은 30년 전 두 명창이 뭉쳤던 KBS 프로그램 '빅쇼 - 조상현&신영희, 소리로 한 세상'을 모티브로 한다.

긴 시간을 지나 다시 합을 맞춘 두 명창의 재담과 함께 KBS국악관현악단,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구성함은 물론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목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더해졌다.

이 외에도 국악 장르인 산조(散調)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산조의 밤',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최초 듀오 공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어린이 소리축제: 헬로우! 패밀리' 등 장르와 시대를 불문한 공연이 축제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왕준 조직위원장은 "올해 세계소리축제는 처음으로 여름철로 시기를 바꿔 명실상부한 여름철의 음악예술 축제로 첫 발을 내딛는 시대"라며 "많은 분들이 축제에 오셔서 전통음악과 함께 외연이 확장되는 우리 음악의 정수를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이제 세계소리축제는 지역예술제에서 벗어나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예술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단순 지역축제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전북콘진원, 게임콘텐츠 전문인력양성과정 성과발표회 성료

게임개발 분야 전문인재 양성 목적
교육생 개발 게임 시연 · 발표
스토리텔링 · 그래픽 디자인 등
심사위원으로 깊은 인상 남겨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글로벌게임센터가 지난 14일 '2024 전북 게임콘텐츠 전문인력양성교육' 성과발표회를 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전북 콘진원 제공〉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김성규) 전북글로벌게임센터가 지난 14일 '2024 전북 게임콘텐츠 전문인력양성교육' 성과발표회를 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게임 기업들의 개발 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게임개발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20명의 교육생이 선발되어 총 72시간, 6주간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100%의 높은 수료율을 기록하며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성과발표회는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생들이 언리얼(UNREAL)엔진을 활용해 개발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고 게임산업 취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생들이 개발한 게임을 시연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도내 기업 특강과 취업 상담회가 이어졌으며,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특히, 수상한 교육생들의 결과물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매커니즘, 그리고 세밀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심사위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해림 교육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수도권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언리얼(UNREAL)엔진을 도내에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성과발표회에서는 우수 교육생 시상 외에도 도내 게임사들이 참여해 특강을 진행하고 게임기업 취업상담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들의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우리 교육생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양성에 앞장서서 개발인력 확보 및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도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 청중평가단 80명 모집

전주문화재단, 내달 7일 청중평가 진행… 공모는 18일까지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다이브 투 퓨전 : 더 비기닝(DIVE TO FUSION : THE BEGINNING)'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의 청중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K-소리(국악)의 확산과 대중성 확대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은 총 1,600만원의 상금과 미래문화도시 페스티벌의 CM송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중평가단은 전문가 1차, 2차 심사를 통과한 곡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전주시와 국악을 사랑하는 시민 80명을 모집해 2024년 9월 7일 팔복예술공장 A동 카페써니에서 청중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중평가단은 평가 당일 4곡을 듣고 투표를 하게 된다. 평가단의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1팀에 천만원의 상금과 대상이 수여된다. 모집인원 초과시 무작위로 추첨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1만원권 문화상품권과 소정의 다과를 제공한다.

전주문화재단 최락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대규모 시민들과 만나는 첫 자리이다. 국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도 작곡 플랫폼에서 국악 장르의 작곡을 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사업"이라며, "수상곡은 시민들이 듣고, 즐기고, 향유할 곡이다.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문화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jc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화도시TF팀(070-7711-375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예술회관 '제7회 수작(秀作)부리다' 기획전, 2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이하 전북예술회관)에서는 '제7회 수작(秀作)부리다' 기획전(이하 기획전)을 16일부터 22일까지 2층 차오름 1실에서 개최한다.

'수작부리다'(대표 전효권)는 수공예 활성화를 위해 창립한 단체로 올해 일곱번째 기획전을 열게 됐다.

이번 기획전은 '손으로 만든 빼어난 작품을 전시한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으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문화적 소양을 고양하고자 한다.

참여 작가는 공예 분야 전문 작가 강미, 김영숙, 김창수, 박은희, 신수경, 유서영, 윤문순, 이희성, 장복남, 장정아, 최금숙, 최노경, 전효권, 최송산, 태원애 등 15명이다.

특히 기획전에 참여한 이희성, 장정아, 전효권, 최송산 작가는 사)한국서화교육협회로부터 명인·명장 인증을 받은 작가들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지역의 명망 있고 특색 있는 수공예 작가도 초청해 다양한 분야의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재생아트 △토탈공예 △서예 △광목자수 △도예 △천아트 △민화 △전통매듭 △연인형공예 △프리저브드 플라워 △한국화 △현대서각 △목공예 △문인화 △한지공예 등의 공예 분야로 이뤄져 있다.

한편 전북예술회관은 전시·공연 대관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작가들의 레지던시 활동 '남천 복합 문화공간'서

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마련… 11월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이 K-한지마을 조성을 위한 '남천 복합 문화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초청해 레지던시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당은 지난 6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K-한지마을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K-한지마을이 조성될 지역인 전주 흑석골 내에 '남천 복합 문화공간' 마련을 진행 중이다.

남천 복합 문화공간은 K-한지마을 내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되는 곳으로, 전당은 '남천 복합 문화공간'의 첫 활용을 위해 한지의상, 조형, 회화 등 다양한 분야 및 국적의 작가들의 신청을 받아 3개국 8명(1팀, 개인 3명)을 초청하여 레지던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청될 작가들은 한지의상 분야에서는 중국의 'Wuhan Textile University' 소속 작가 Nan Meiling 외 4명, 한지조형 분야에서는 스웨덴의 이우복 작가, 한지회화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Anja Komerup-Bnag 외 1명의 작가들이 선정됐다.

이번달 중국 작가 및 학생들을 시작으로 10월에 스웨덴과 프랑스 작가들이 레지던스 활동을 위해 방문하기로 확정되었고, 그 밖에 체코 등 유럽권 여러 국가의 작가들과 의사를 타진 중이다.

이들은 K-한지마을이 조성될 전주 흑석골 내 '남천 복합 문화공간'에서 짧게는 3주, 길게는 1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레지던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故 남천(南天) 송수남(1938~2013) 화백은 수묵의 번짐과 발묵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조합해 한국적인 이미지로 표상되는 '한국 풍경' 시리즈를 비롯한 수묵 특유의 미감을 대담하고 생동감 있는 독특한 화법으로 작품세계를 펼친 이 지역의 대표적인 화백이다.

한지를 평생 작업의 매체로 삼아 화풍을 수립하신 송수남 화백이 홍익대학교에서 제자 양성을 마치신 후, 한지의 고장 흑석골로 돌아와 마련하셨던 작업실을 최근 지역의 한지업체 대표가 송수남화백의 뜻을 기리고 문화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수를 했다. 이후 전당과 K-한지마을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송수남 화백 작업공간을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를 거쳐 이번 레지던시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전당은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센터 및 동양화과와의 협약 이후, 서울대학교 측과도 한지를 활용한 작품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레지던시를 위한 일정 및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흑석골에 있는 남천 복합 문화공간의 활용은 K-한지마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다양한 분야와 국적의 작가들을 초청한 만큼, K-한지마을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전통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고 말했다.

한편 초청 작가들의 레지던시 활동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